

Mitsui, PTA 중국투자 적극적

자사기술 도입 60만톤 플랜트 건설 예정 ... 수익성 강화 모색

Mitsui Chemicals(三井化學)이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의 중국투자를 단행할 방침이다.

江蘇省 張家港 보세구역에 PTA의 제조·판매회사인 Mitsui Chemicals 유한공사(Mitsui Chemicals 100% 출자)를 설립해 자사기술을 채용한 60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방침이며, 3월11일 중국정부에 투자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2007-2008년 새 플랜트가 가동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BP, Mitsubishi Chemical에 이어 Mitsui Chemicals이 중국거점을 설립함으로써 아시아의 PTA 시장은 마침내 유력 메이저들이 중국에서 각축을 벌이는 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Mitsui Chemicals은 PTA 생산능력이 일본 75만톤, 인도네시아 45만톤, 타이 90만톤으로 총 210만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점유율 및 생산능력이 아시아 2위이다. 게다가 타이에서는 2005년 가을 가동개시를 목표로 50만톤의 No.3 플랜트를 건설중이어서 張家港의 60만톤 플랜트를 완공하면 총 320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Mitsui Chemicals은 차기 PTA 프로젝트로 과거 몇년간 중국거점 설립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이미 張家港市에서는 PTA 60만톤 플랜트 3기를 건설할 수 있는 50만평방미터의 부지를 확보했다.

Mitsui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투자에 앞서 주력거점인 타이의 PTA 합작기업 Siam Mitsui PTA에서 No.3 건설에 따른 증설을 추진했으나 격전지인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인가신청을 낸 것이다.

PTA는 Polyester 섬유, PET병의 원료로 특히 199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는 수요증가의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1990년대에는 섬유산업이 발달한 한국, 타이완, 인도네시아, 타이, 말레이시아 등에서 세계 PTA 유력 메이저나 합성섬유 메이커에 의한 PTA 신증설이 잇따라 행해졌으나, 2000년 이후에는 아시아 섬유산업에서 중국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PTA 수요도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에 세계 최대의 PTA 메이저인 BP Chemicals이 2003년 廣東省 珠海에서 35만톤 플랜트의 가동을 개시한 데 이어 일본기업으로는 2001년 중국정부에 투자인가를 신청한 Mitsui Chemical이 곧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Mitsui Chemicals는 2004-2007년을 대상으로 한 중기경영계획에서 기능성재료 분야의 확대·성장과 석유화학·기초화학제품의 수익성 강화를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다.

특히, PTA 및 Phenol을 중심으로 한 Aromatic Chain은 앞으로도 최적거점에서 생산능력 증설을 실시함으로써 수익성 강화를 꾀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4/04/01>